

코스피, 전쟁공포 딛고 전고점 돌파... '7000피' 넘본다

5000선 위협 두달만 낙폭 회복
일본·대만 등 아시아증시 강세
CNN 공포와 탐욕지수도 상승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전쟁의 충격으로 한때 5000선마저 위협 받았던 코스피가 21일 전고점을 돌파하며 다시 비상할 체미를 갖추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9.38p(2.72%) 오른 6388.47로 마감했다. 1.34% 오른 6302.54로 출발한 코스피는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 끝에 전쟁 발발 직전인 올해 2월 26일과 27일 각각 기록

한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6307.27)와 장중 사상 최고치(6347.41)를 동시에 잡아치우며 정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

각 1조3296억원과 7371원을 순매수하며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1조9195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지난 2월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피'(코스피 6000p)를 넘어서며 촉포를 쏘아 올린 코스피는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거센 충격에 직면했다. 같은 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선제공격해 이란 지도부 대부분을 사살했고 이란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주변 산유국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 공습을 감행했다. 이에 전쟁 발발 후 첫 거래일인 3월 3일 코스피는 452.22p(7.24%) 급락했고, 4일에는 698.37p(12.06%) 폭락하며 불과 2거래일 만에 6200대 중반에서 5093.54까지 내리쪘었다.

낙폭과 하락률 모두 역대 최대였다. 시장에선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호려 정치(사이드카)에 이어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한국판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사상 최고치인 80.85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 주요국 증시 중 압도적 1위 수익률을 보이며 불장을 이어왔던 까닭에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한 충격도 컸던 셈이다. 이후에도 국내 증시는 전쟁 흐름과 국제유가 방향, 노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그런 분위기가 급전환된 계기는 미국과 이란이 이달 8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다. 전쟁이 드디어 끝날 것인 기대에

주요국 증시는 빠르게 낙폭을 회복한 체 차례로 신고가 경신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7일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7126.06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7100선 위에서 정을 마쳤고, 이날은 코스피가 전쟁 이전 장중 증가 기준 최고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닛케이255지수와 대만 가권지수가 0.89%와 1.75% 상승하고, 한국시간 오후 3시 58분 현재 홍콩 항셱지수도 0.39% 오른 2만6464.43을 나타내는 등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강세다. 한때 35를 넘어섰던 '공포지수'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현재 18.87까지 내려와 안정세를 보인다. 지난달 말 '극단적 공포' 구간인 14까지 내렸던 미국 CNN 방송의 '공포와 탐욕 지

수'(Fear & Greed Index)도 현재는 70까지 치솟아 '탐욕' 구간에 돌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2일 휴전 협상 및 호르무즈 해협 운항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주식시장은 전쟁 리스크에 갑수룩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증장기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모습"이라면서 "주도주인 반도체의 실적 모멘텀이 외국인 패시브 자금에게 매수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선 현재의 미·이란 강대국 대치가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수싸움에 가까우며 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선 상황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전남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게임체인저' 양자산업 육성, 전남·광주 '초광역 협력'

시·도, 지산학연 23개 기관 업무협약...생태계조성 속도
정부 공모 'K-퀀텀클러스터사업' 유치 대응...경쟁력 확보

광주시와 전남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공모사업 유치와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시도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전남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시도가 보유한 산업 기반과 연구 역량을 집결해 대한민국 양자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는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전남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광융합산업진흥회, 광기술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참여했다. 또 전남대학교, GIST, 조선대학교, KENTECH,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삼성SDS, 한전KDN, SK브로드밴드, IDQ코리아 등 기업들도

힘을 보탤다. 지·산·학·연이 총망라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추진 동력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양자기술은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등을 포괄하는 분야로,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속 연산과 보안성을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삼성전자·하이닉스 '2배 ETF' 내달 출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허용되면서 10여개 ETF가 내달 출시를 준비 중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도입 허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유망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이 허용됐다.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 이상,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유망주가 대상이 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에 해당한다. 삼성·미래에셋·한투·KB 등 대형 운용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를 내놓을 예정이다. 신한과 한화 자산운용 등도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의 ETF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거래소에 서 수요 조사 때 레버리지 2종의 ETF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특별히 1개사 1종 출시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한 대형 운용사들은 대부분 레버리지 2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5~6종,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5~6종 등 모두 10여종의 레버리지 ETF가 내달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운용사가 앞다투어 이들 ETF 출시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이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특정 종목 1개만을 기초로 하는 ETF는 제한돼 왔다. 그러나 미국·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미 거래되고 있어 국내에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전국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 등 2만여명이 21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 집결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협 자율성 수호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법 개정은 개혁 아닌 개입"

농민·조합장 2만명, 여의도 일대서 '농민 결의대회'

전국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 등 2만 명이 21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 집결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협 자율성 수호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조합장과 농민들이 대거 참여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임직원 1심 유지 시 직무정지' 조항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향후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성이 무너지면 농협은 농민 조직이 아닌 관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관저 감독 중단 △독소조합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중단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임직원 1심 유지 시 직무정지' 조항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향후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력거래소, 얼라이언스 협약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참여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20일부터 24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6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 Week)' 및 '2026년 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해 진행되는 대규모 국제 기후·에너지 행사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확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력 분야 민간기업인 서창전기통신주와 ㈜인코어 테크놀로지스의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 운영을 지원했다. 이번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확대 협약은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 정책 부흥을 위한 범정부 수출협력체계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소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수출 지원 강화를 도모한다. 또 20~21일 기후변화주간 홍보부스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에서 운영했다. 거래소는 빅데이터·AI 활용 기반 전력 수요 및 기후변화 예측력 강화 기술을 소개했다. 나주=조희진 기자 pose007@

광주도시공사 행복주택 316세대 모집...입주자격 완화

청년·신혼 소득기준 최대 150%로 확대
광주역·서림마을...내달 11일~13일 접수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광주역과 서림마을 다사로운 행복주택 316세대를 신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고물가와 급리 인상으로 주거 부담이 커진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현실을 반영해 소득과 기간 요건을 대폭 유연하게 적용한다. '광주역 다사로운(177세대)'과 '서림

마을 다사로운(139세대)' 총 2개 단지가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대상이다. 이 중 서림마을은 이번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모집하지 않으며, 두 단지 중복 신청도 불가능하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 기준이다. 기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순위에 따라 최대 150%까지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를 넓혔다. 기간 요건도 완화했다. 청년층 사회초년생 인정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신혼부부 혼인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기준 역시 만 6세에서 만 9세 이하로 늘어 수혜 범위를 확장했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며, 등기우편 또는 각 단지 관리사무소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이송홍 기자 photo25@

을 선별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산정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 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된다.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LH 건설경기 안정화지원단(031-738-4383~4)으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임재욱 기자

LH, 내일 광주서 준공후 미분양 매입 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22일 전북권, 23일 광주전남권(LH 광주 전남지역본부 3층 세미나실), 28일 충청권, 30일 강원·제주·그외지역, 5월 14일 부산·울산·경남권 순으로 열린다.

LH는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미분양 아파트 5000호 매입을 추진 중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또는 7월 말까지 준공 예정(3개월 내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 및 분양 전환 가능성, 주택 품질, 단지 규모·분양률·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